

홍익대 2019학년도 기출 1번

✎ 제시문(가)~(라)는 옛것에 관한 글이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논하시오. (800±100자)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녀던¹⁾ 길 알퐁²⁾ 잇너
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당시(當時)에 녀든 길흘 몇 히를 브려 두고
어디가 든니다가³⁾ 이제아⁴⁾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되⁵⁾ 므음 마로리⁶⁾

청산(靑山)은 엇데흐야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흐야 주야(晝夜)에 굿디⁷⁾ 아니논고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⁸⁾ 호리라

- | | | | |
|---------|--------|---------------|------------------------|
| 1) 녀던 | : 가던 | 5) 년 되 | : 다른 곳에 |
| 2) 알퐁 | : 앞에 | 6) 므음 마로리 | : 마음 두지 않으리 |
| 3) 든니다가 | : 다니다가 | 7) 굿디 | : 그치지 |
| 4) 이제아 | : 이제야 | 8) 만고상청(萬古常靑) |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푸르름 |

(나)

한자어로 고전(古典)은 옛날을 뜻하는 ‘고(古)’와, 법(法) 또는 표준을 뜻하는 ‘전(典)’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고전은 주로 전범(典範)¹⁾이 되는 옛날의 제도와 문물 또는 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한편 한자어 고전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클래식(classic)’인데, 이는 최고 계급을 뜻하는 라틴어 ‘클라스(classicus)’에서 유래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학과 예술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재평가하여 표준으로 삼으면서 클래식은 고대의 모범이 될 만한 시인이나 사상가,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자어 고전과 영어 클래식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이 될 만한 옛날의 작품이나 책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는『시경』,『서경』,『예기』,『논어』등이, 서양에서는『오디세이아』,『국가』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전은 문명권별로 공동의 전범이 되는 고대의 작품을 지칭하다가 근대 이래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여러 문명권과 여러 나라, 여러 분야의 명작들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 문학의『춘향전』,『구운몽』, 서양문학의『햄릿』,『돈키호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자유론』,『종의 기원』등이 새롭게 고전의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고전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 중에서도 질적으로 최고·최상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다)

통상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오래된 것이라 주장하는 이른바 ‘전통들’은 실상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극히 최근의 것일 따름이며, 종종 발명된 것이다. 전통을 발명해낸다는 것은 과거라는 창고에서 재료를 빌려와 이를 반복하여 공식화하고 의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인들은 각 씨족을 표시하는 격자무늬 천으로 만든 짧은 치마인 킬트를 입는다. 스코틀랜드인들은 킬트가 까마득한 고대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체로 근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잉글랜드와의 통합 이후에, 때로는 그보다 한참 뒤에야 등장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통합에 대한 항의를 나타낸다. 격자무늬 천은 16세기에도 스코틀랜드에 있었지만, 짧은치마는 18세기 이전에는 상용되지 않았다. 짧은 치마는 1707년 통합 이후에 발명된 것이다.

그 외에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등장한 기념제와 동상 역시 발명된 전통에 해당한다. 이 시기 새롭게 형성되거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회 집단들은 사회 통합과 정체성을 확인할 새로운 장치가 필요했고, 당시 국가들은 국민의 충성을 공고히 할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야 했다. 상징적이거나 영웅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공공 기념물이 이러한 목적 하에 대량 생산되기도 했다.

(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과 시설은 얼마동안은 최첨단으로 군림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한때 최첨단이었던 후기 산업도시들도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과거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황폐화된 유산을 떠안게 되면서, 각 도시들은 여러 방면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루르 지방에는 한때 유럽 최대 규모의 철강회사였던 티센 제철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이 공장은 철강 산업의 쇠락으로 인해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나뒹구는 폐허가 되었다. 이 도시에서는 기존의 공장을 제거하는 대신 여가, 문화예술, 상업, 교육 시설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버려진 철강공장 지역은 1997년 새로운 개념의 ‘21세기형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재창조되었다.

또한 상하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역사적 가치의 보호를 강조하는 도심 정책이 실시되면서 스쿠먼 주택지역의 재개발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스쿠먼 주택은 상하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축약하여 드러내주는 비좁고 낡은 공간으로, 근대 도시 상하이를 특징짓는 가옥이었는데, 옛 상하이에 대한 향수가 부각되면서 상하이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오래된 느낌을 살리면서도 내부 구조나 장식 등은 새로운 기능에 걸맞게 개조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카페와 갤러리, 레스토랑, 상점은 이제 상하이 도시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가)~(라)는 옛것에 관한 글이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논하시오. (800±100자)

[독해]

- (가) 옛것의 의미: 옛 성현의 유물(학문) - 불변성, 계승 방식: 그대로 온존하며 계승
- (나) 옛것의 의미: 예전에 만들어진 최고의 표준, 계승 방식: 후대에 재평가하여 계승
- (다) 옛것의 의미: 과거의 소재를 새롭게 의례화, 계승 방식: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제작하여 계승(유지)
- (라) 옛것의 의미: 황폐화된 유산, 계승 방식: 옛것을 지금의 방식과 조화시켜 재창조하여 계승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 ⇨ 생략

[예시답안] 722자

제시문들은 옛것의 의미와 이를 계승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옛것은 옛 성현의 학문이다. 화자는 고인이 지나간 길, 즉 옛것이 변함없는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을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존중, 보존하며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옛것이 가리키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옛것이란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다듬어진 성찰의 산물이다. 이는 과거에 만들어진 최고의 표준을 말한다. (나)의 화자는 전세계에서 전통으로 전해지는 제도, 문물, 예술 등의 고전을 현대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계승하여 현재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다르게 제시문 (다)는 우리가 옛것으로 인식하는 전통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유산일 수 있다고 말한다. 스코틀랜드인의 킬트처럼 과거 전통에서 소재를 빌려오고, 이를 바탕으로 현 사회의 목적에 맞게 의례화하여 옛것을 계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옛것이란 지금은 황폐화된 과거의 유산이다. 과거에는 찬란했던 문명이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현재의 요구에 맞게 재창조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옛것을 현재의 문화와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탄생시켜 계승하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 [문제 1]은 옛것과 관련된 학문, 고전, 전통, 공간 기억 등을 담고 있는 제시문을 읽고 옛것의 의미와 그 계승방식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 옛것이 갖는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한다.
- 제시문 (가)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황의 연시조『도산십이곡』의 일부(3수)를 발췌하였다. 제시문 (나)는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고전의 본질과 가치』중 개념 부분을 요약하여 편집하였다. 제시문 (다)는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엮은『만들어진 전통』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고, 제시문 (라)는 김정후의『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와 한지은의『도시와 장소 기억』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다.
- 이 문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의 의미’, ‘문화의 요소’, ‘문화의 기능’, ‘문화를 보는 관점’, ‘문화변동’과 연관되어 있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한국문학의 문학적 전통과 미적 특질’, ‘한국문학의 전승과 흐름’과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독서와 문제해결’, ‘작문 맥락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다.

[대학 문항해설]

- 인간 사회에서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쌓아올린 것들은 언제나 옛것이 된다.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옛것을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 1]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때 옛것의 물질적인 대상을 그대로 나열하기보다 그것에 담겨 있는 추상적인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요점이다. 나아가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옛것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포함하여 그것에 대한 변형의 문제, 나아가 현재적 가치에 따른 활용의 문제까지 서술하여야 한다.
- 제시문 (가)는 조선시대 학자인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쓴 연시조인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열두 수 중에서 세 수를 제시한 것이다. 문학 교과서 3종에 해당 시조들이 수록되어 있다. 옛사람을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옛사람이 갔던 길이 앞에 있으니 당연히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몇 해나 그 길을 가지 않고 버려두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옛사람의 길이 만고상청하리라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옛사람의 길이란 앞선 사람들의 깨달음과 학문을 향한 길을 의미한다. 이황은 자연에 빗대어 인간의 학문적 계승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제시문 (나)는『고전의 본질과 가치』로, 고전의 개념-고전의 본질-고전의 가치를 설명하는 지문 중 첫 번째 부분인 고전의 개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한자어 ‘고전(古典)’과 영어 단어 ‘클래식(classic)’의 어원과 용법 중심으로 고전의 정의를 파악하고, 이어서 고전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음을 설명한다. 고전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 중에서도 질적으로 최고·최상의 걸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제시문 (다)는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엮은『만들어진 전통』중「서장: 전통들을 발명해내기」,「전통의 발명: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전통」,「대량 생산되는 전통들: 유럽, 1870~1914」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전통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발명되기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라)는 김정후의『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와 한지은의『도시와 장소 기억』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과거의 산업유산과 전통주택이 현대와의 만남을 통해 옛것의 가치가 재건 내지 재창조되는, 독일과 중국의 예를 담고 있다.

[대학 채점기준]

1. 학생들은 제시문 (가)~(라)에 서술된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옛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 40%,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의 서술에 50%를 배점하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문제는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 두 가지이므로 제시문 (가)~(라)에서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으면 감점한다.
3.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를 논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왼쪽의 ‘옛것의 구체적인 대상’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옛것의 단서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답이 될 수는 없다. 표 오른쪽의 ‘옛것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까지 서술했을 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표에 제시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답안은 점수를 부여한다. (40%)

	옛것의 구체적인 대상	옛것의 의미
제시문 (가)	-고인(古人) -당시에 녀든 길 -청산과유 -만고상청	-고인이 가던 길 -옛사람이 이룩한 학문적 전통 -변함없는 가치
제시문 (나)	-고전 -명작, 걸작 -시경, 서경, 예기, 논어, 오디세이아, 국가, 춘향전, 구운몽, 햄릿, 돈키호테, 자유론, 종의 기원	-표준, 전범, 모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와 상상의 산물 중 최고와 최상의 것
제시문 (다)	-전통들 -킬트 -기념제, 동상 -공공기념물	-발명된 것 -과거라는 창고에서 재료를 빌려와 이를 반복하여 공식화하고 의례화된 것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에 대한 항거의 의미가 담긴 것 -사회를 통합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장치 -국민의 충성을 공고히 할 새로운 방법
제시문 (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시설 -황폐화된 유산 -티센 제철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나뉘는 폐허 -버려진 철강공장 지역 -상하이 스쿠먼 주택(지역) -비좁고 낡은 공간	-탈바꿈(변모, 재탄생, 재개발, 재창조)할 수 있는 과거의 유산 -자연 친화적 환경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제공해주는 공간 -향수, 오래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곳

5.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논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의 예시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진술되면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50%)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
제시문 (가)	-옛것을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함. -옛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함. -옛것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함.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진리를 따름.
제시문 (나)	-옛것을 본으로 삼고 보존함. -옛것이 가지는 보편적, 항구적 힘을 인정함. -옛것의 범위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여러 공간과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봄.
제시문 (다)	-전통은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발명(창조, 구성, 고안)되어 계승된다고 봄. -전통의 생성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제시문 (라)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재창조함. -옛것의 재창조, 재발견, 재활용, 옛것과 새것의 공존, 과거와 현재의 조화

6. 문제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 3, 4번 채점 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설득력을 갖춘 답안이나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답안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

7.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대학 예시답안] 828자

제시문 (가)~(라)에는 옛것의 의미와 계승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고인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인이 갔던 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애착을 보인다. 또한 몇 해가 지나고 돌아와도 변함없는 청산유수의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며 계승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다. 즉 (가)에서는 옛것의 항상성을 강조한다.

(나)는 고전의 의미와 목적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전은 옛날을 뜻하는 의미와 표준을 뜻하는 의미가 결합된 단어로 여러 분야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이다. 따라서 고전과 클래식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이 되어 왔고, 이를 통해 제도, 문물, 예술 등을 재평가하여 학습하고 이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이어 왔다.

(다)는 (가)와 (나)와는 달리 전통을 옛것으로 보지 않고 비교적 최근의 것이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전통을 과거에서 소재를 가져와 근본으로 삼고 새롭게 공식화하고 의례화하며 발명해 낼 수 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인의 킬트, 다양한 기념제와 동상들의 경우 인류는 새로 형성되거나 급진의 변화를 겪은 집단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전통을 발명해내고 생산해낸 예가 된다.

(라)에서는 거의 유물로 전락한 옛것을 현대식으로 변화시켜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통해 전통을 계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티센 제철소와 상하이의 스쿠먼 주택지역이 대표적인 예이며, 쇠퇴된 과거는 오늘날 기존의 용도와는 다르지만, 변화와 개조를 통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대의 한 문화 부분을 상징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